

## (2) 사화의 발생

- 연산군
  - 정치 : 훈구와 사림을 억압하고 왕권 강화 시도 + 사림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 억압 시도
  - 사건
    - 무오사화**
      - 발단 : 훈구파(이극돈, 유지광 · 서얼)가 김일손(김종직의 제자)이 <성종실록>에 실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모함
      - 결과 : 영남 사림들이 처형되고, 김종직은 부관참시를 당함
    - 갑자사화**
      - 내용 :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훈구파와 사림파를 제거
      - 결과
        - 관리에게 신언패(발언을 삼가해야 한다는 패)를 차게 하는 등 언론 억압
        - 재정 낭비 → 폭압 정치
      - 영향 : 박원종 등의 훈구파가 중종반정 단행
  - 사회 : 홍길동의 난(충청도 일대에서 활약)
- 중종
  - 정치
    - 사림의 재등용 → 개혁 (조광조)
      - 현량과 실시(신진 세력 추천), 소격서 폐지, 공납제 개혁 요구
      - 성리학적 질서 확립(향약 실시, 소학 보급), 경연 강화
    - 기묘사화**
      - 발단
        -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정치에 대한 중종의 피로감 증가
        - 조광조가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일부 공신들의 위훈 삭제 요구 → 훈구 공신의 반발
      - 과정 : 훈구파는 조광조가 직접 왕이 되고자 한다고 모함(주초위왕, 走肖爲王)
        - 조광조는 과직되어 유배를 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림들도 많은 피해 입음
    - 기구 : 비변사를 임시 기구로 설치 ← 삼포왜란 이후
  - 외교 : 삼포왜란 → 임신약조 → 사랑진왜변
  - 경제(군역) : 군적수포제 실시(정군과 보인 모두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함)
  - 사회
    - 향촌 : 백운동 서원 설립(주세붕, 최초의 서원)
    - 정책 : <구황절요> 간행(구황법 제시) cf) <구황촬요> 간행은 명종 때의 일
  - 문화
    - 출판 : <이륜행실도> 편찬,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cf) <훈몽자회> 간행(최세진)
    - 사상
      - 유학 : 양명학 전래(서경덕 학파와 종친을 중심으로 수용)
      - 불교 : 억불 정책 ex) 승과 폐지
- 명종
  - 정치
    - 을사사화**
      - 배경 : 인종 사후 명종이 즉위하면서 생모인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실시
      - 명분 : 윤임 일파가 명종 시해를 모의했다는 명목
      - 과정 : 윤원형 일파(명종의 외척, 소윤)가 윤임 일파(인종의 외척, 대윤)를 정계에서 축출하는 과정에서 윤임과 가까웠던 사림도 피해를 입음
      - 영향 : 양재역 벽서 사건 발생
    - 기구 : 비변사의 상설 기구화 ← 을묘왜변 이후
  - 외교 : 정미약조 → 을묘왜변 cf) 제승방략 체제 실시
  - 경제
    - 토지 : 직전법 폐지(녹봉만 지급) → 지주전호제 확산
    - 폐해 : 척신과 권신들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해택지 개간
  - 사회
    - 향촌 : 백운동 서원을 소수 서원으로 사액(이항의 건의)
    - 임격정의 난
      - 지역 : 황해도를 중심으로 경기 · 강원 · 평안 · 함경도 일대
      - 내용
        - 백정 거주지와 공물 운송과 사신 왕래가 많아 백성의 부담이 큰 곳에서 활동
        - 조선 전기 도적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
  - 문화
    - 불교 : 숭불 정책(문정왕후) ex) 승려 보우 중용, 승과의 일시적 부활, 선교 양종의 재설치
    - 출판
      - 지리 : <조선방역지도> 간행(만주와 쓰시마를 표시)
      - 유서 : <고사촬요> 간행(어숙권) cf) 서명응 : <고사신서>라는 이름으로 증보(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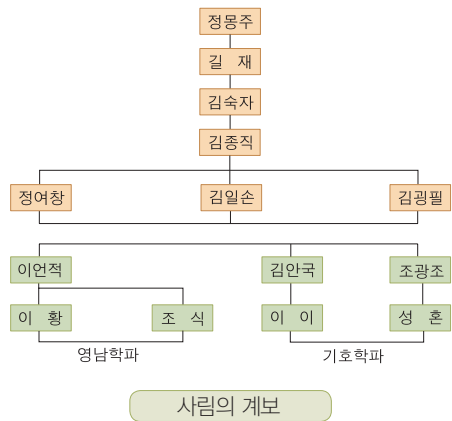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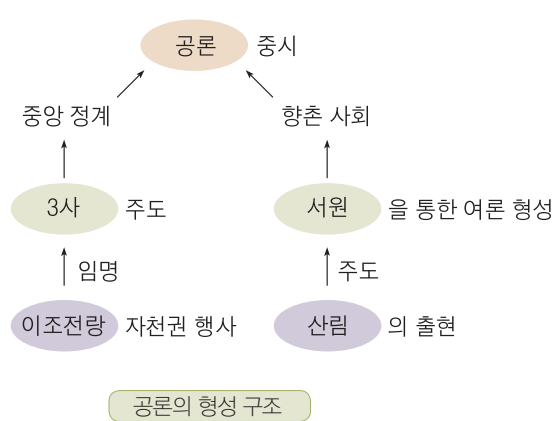
## 2 봉당 정치

### (1) 봉당의 출현

- 배경
  - 정치에 참여하려는 양반의 수 증가 but 관직 · 토지는 한정 → 관직 · 토지를 둘러싼 양반 간의 대립과 반목
  - 초기에 비해 16c 이후 상대적으로 왕권 약화
- 쟁점 : 기존 척신 세력에 대한 처리 문제 + 선조 때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싼 대립
- 전개
  - 기성 사림
    - 구성 : 명종 때부터 정권에 참여해온 사림 ex) 심의겸
    - 특징 : 척신 정치 청산에 소극적 → 외척인 심충겸을 이조 전랑에 임명해도 된다는 입장
    - 봉당 : 서인 → 이이 · 성혼의 학문을 계승
  - 신진 사림
    - 구성 : 새롭게 정계에 등장한 사림 ex) 김효원
    - 특징 : 척신 정치 청산에 적극적 → 외척인 심충겸을 이조 전랑에 절대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 봉당 : 동인 → 이황 · 조식 ·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
- 성격 :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파적 성격뿐 아니라 학문적 이념에 따른 학파적 성격도 띠게 됨

### (2) 봉당 정치의 성격

- 전제
  - 정치 이념과 학문에 따라 조직된 봉당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
  - 공론에 따라 상호 견제와 비판, 협력을 유지하는 정치 형태
- 과정 : 공론 중시
  - 지방 : 서원과 향교를 통해 여론 수렴 → 공론을 주도하는 산림의 출현  
→ 산림의 주장이 자신의 학파를 통해 중앙 정치에 반영됨
  - 중앙
    - 비변사를 통해 의견 수렴
    - 언론을 중시 : 3사 언관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 확대
- 한계 : 공론은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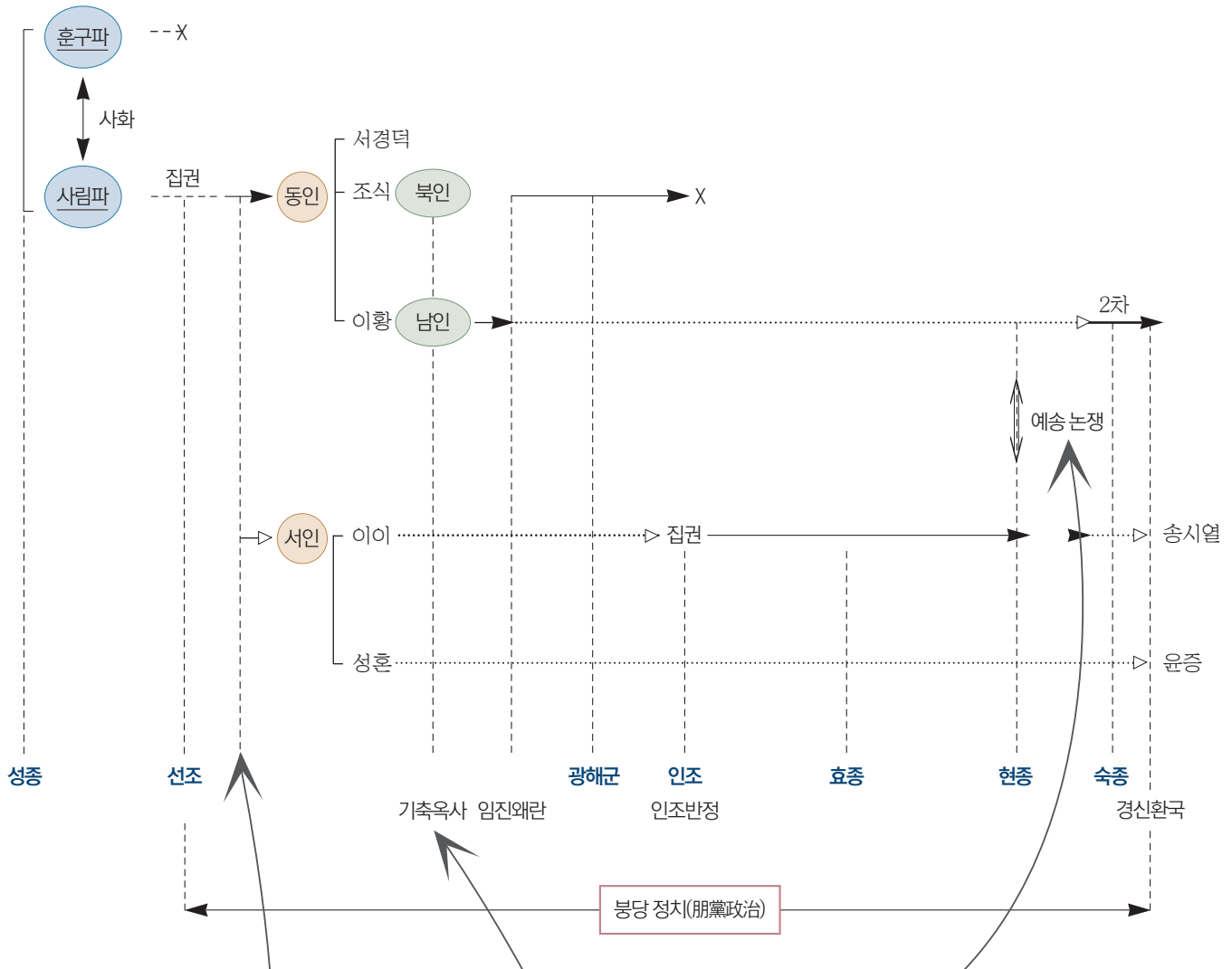
### 확인해 두세요! • 봉당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논거를 바탕으로 식민사관을 주장했다. 식민사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당파성론이다. 당파성론은 조선의 정치가 역사의 발전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서 조선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제 합병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 (3) 중기의 국왕

- 선조
  - 정치
    - 사림의 분당
      - 계기 : 척신(심충겸)의 이조 전랑에 대한 임명 문제
      - 내용 : **동인** (신진사림, 학파를 일찍 형성) vs **서인** (기성사림, 학파를 후에 형성)
      - 결과 : 동인의 정국 주도
    - 동인의 분당
      - 계기 : 기축옥사(정여립(대동계) 모반 사건) + 건저의 문제(정철 논죄)
      - 내용 : **북인** (정철 처리 문제에 강경) vs **남인** (정철 처리 문제에 온건)
      - 결과 : 남인의 정국 주도
    - 왜란 이후 : 전란 과정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한 **북인**의 정국 주도    cf 북인이 소북과 대북으로 분화
  - 외교
    - 여진 : 니탕개의 난 vs 신립이 제승방략 체제로 격퇴
    - 일본 : 임진왜란 · 정유재란 → 탐적사(승려 유정), 회담겸쇄환사 · 조선통신사 파견
  - 군사 : 훈련도감 설치 + 속오군 편성(충주 탄금대 전투 패배 이후 진관 체제로 복귀)
  - 사회 : 경재소 혁파
  - 문화
    - 출판 : <성학십도>(이황), <성학집요>(이이), <기사실기>(이이), <대동운부군옥> 간행    cf 사고 설치
    - 지리 : <곤여만국전도>(세계지도) 전래
- 광해군
  - 정치 : **북인**의 주도
    - 남인 · 서인 배제 시도    cf 5현(김광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문묘종사
    - 회퇴변척 시도 : 이언적(회재) · 이황(퇴계)을 문묘에서 삭제 시도 but 실패
  - 외교
    - 중국 : 중립 외교 ex) 강홍립 사건
    - 일본 : 기유약조 체결
  - 전후 복구 : 양안 · 호적 재작성, 대동법 실시(경기), <동의보감> 편찬, 사고 재정비, 화기도감 설치
- 인조
  - 정치
    - 인조반정 (서인)
      - 명분 : 중립 외교 + 폐모살제(광해군이 인목대비 유폐, 영창대군 살해)
      - 결과
        - 서인**의 정국 주도 + 명에 대한 의리명분론 강화
        - 이괄의 난 발생(반정의 논공행상에 대한 불만)
    - 관직 : 시강원에 산립직 설치 → 산립 등용
  - 군사 :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설치 + 박연(벨테브레이)이 훈련도감에 소속됨
  - 경제
    - 수취 : 영정법 실시
    - 산업 : 동전 주조 ex) (팔분제) 조선통보, 상평통보(?)
- 효종
  - 정치 : 북벌론을 주도한 **서인**의 정국 주도 + **남인** 참여 → 북벌 준비(송시열, 송준길, 이완)
  - 군사 : 청의 요청으로 2차에 걸친 나선 정벌 + 하멜이 훈련도감에 소속됨
  - 경제
    - 수취 : 양척동일법 실시
    - 산업 : 동전(십전통보)을 개성을 중심으로 널리 유통 + 설점수세제 첫 실시
  - 문화 : 시헌력 도입(← 김육의 노력)
- 현종
  - 정치 : **서인**의 정국 주도 + **남인** 공존(남인 → 서인이 주도한 북벌론을 비판)
  - 예송
    - 1차 (기해)
      - 발단 : 효종 사후 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제 문제에 대한 논쟁
      - 내용
        - 서인 : 體而不正(왕위를 승계했으나 적통은 아님) → 1년복(기년복) 주장
        - 남인 : 3년복 주장
      - 결과 : **서인** 승리(송시열 · 송준길 등)
    - 2차 (갑인)
      - 발단 : 효종비 사후 자의대비(조대비)의 복제 문제에 대한 논쟁
      - 내용 : 서인(9개월복 = 대공복) vs 남인(1년복 = 기년복)
      - 결과 : **남인** 승리(윤휴 · 허목 · 윤선도) → **남인**의 정국 주도, **서인** 참여
  - 경제 · 사회 : 제언사 설치

## (4) 전개 과정



## 1. 사림의 분당 : 동인 vs 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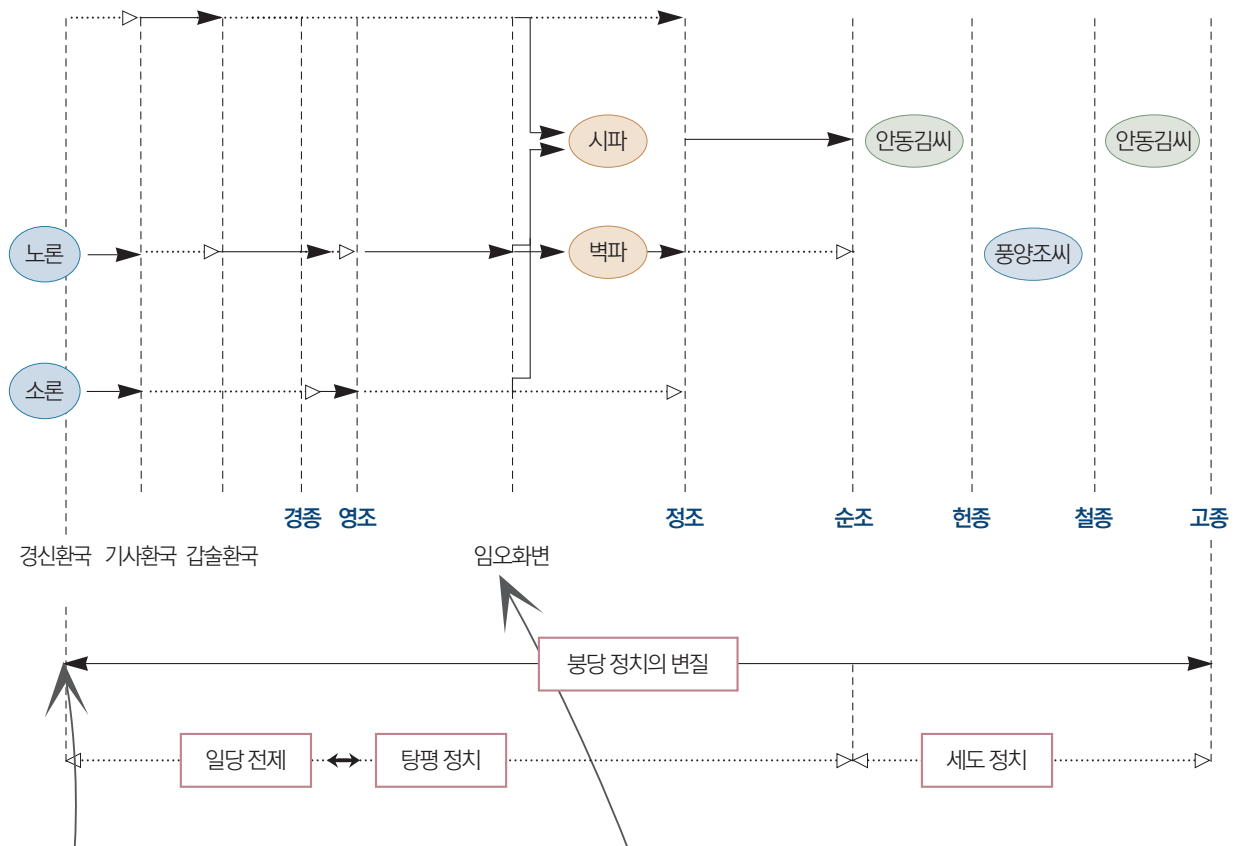
- 정파
  - 계기 : 척신(심종겸)의 이조전랑 임명에 대한 입장 차이
  - 입장 : 동인(김효원, 부정적 = 강경) vs 서인(심종겸, 온건)
- 학파
  - 동인 : 서경덕 · 조식 · 이황의 학문 계승
    - 사족의 수기(修己) 강조, 지배층의 도덕성 중시
  - 서인 : 이이 · 성혼의 학문 계승
    - 치인(治人) 강조, 개혁을 통한 부국안민 중시

## 3. 예송 논쟁

	남인(南人)	서인(西人)
논리의 근거	국조오례의	주자가례
1차 (기해)예송	3년설	1년복 → 승리
2차 (갑인)예송	1년복 → 승리	9개월복
효종의 정통성	인정	體而不正
정치의 중심	왕권(王權)	신권(臣權)

## 2. 동인의 분당 : 북인 vs 남인

- 정파
  - 계기(기축옥사) : 정여립(대동계 조직) 모반 사건을 서인 정철이 혹독히 조사하여 동인의 막대한 피해
  - 쟁점 : 건저의 사건(왕세자를 세우는 논쟁)으로 선조의 미움을 받은 서인 정철 처벌에 대한 입장 차이
  - 입장 : 북인(정철에 대해 강경) vs 남인(정철에 대해 온건)
- 학파 : 북인(서경덕 · 조식의 학문 계승, 정인홍 · 이이첨) vs 남인(이황의 학문 계승, 유성룡)



#### 4. 서인의 분당 : 노론 vs 소론

- 정파
  - 쟁점 : 경신환국 이후 남인 처벌에 대한 입장 차이
  - 입장 : 노론(남인에 대해 강경, 송시열 · 송준길 등) vs 소론(남인에 대해 온건, 윤증 · 박세채 등)
  - cf) 갈등 심화 : 갑술환국 이후 '희빈 장씨'에 대한 처벌 문제(무고의 욕) + 숙종 이후 왕위 계승 문제
- 학파
  - 배경 : 사제지간인 송시열(회덕, 스승)과 윤증(니성, 제자)의 사상적 갈등 → 회니시비 발생
  - 입장 : 노론(이이 → 송시열의 학문 계승) vs 소론(성혼 → 윤증의 학문 계승)

#### 5. 정계의 재편 : 벽파 vs 시파

- 원인 : 사도세자의 죽음(임오화변)에 대한 입장 차이
- 입장
  - 벽파 :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시함 ex) 대다수의 노론(심환지 등)
  - 시파 : 사도세자의 죽음을 측은시함 ex) 남인(채제공, 이가환, 정약용), 일부 노론(안동 김씨), 일부 소론